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32 주차 (13:31~14:11)

(2015년 8월 30일 - 2015년 9월 5일)

(제3권 32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32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8 월 30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도록하는 새 계명 (주일)

오늘의 본문 (요 13:31~38)

31. 저가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32.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3.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6.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 오리라
37.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답을 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원문해석하기

- (31절) 그런데 그가 나갔을 때 (Ὅτε οὖν ἐξῆλθεν,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Ἰησοῦς)
지금 인자가 영화롭게 되었다 (νῦν ἐδοξάσθη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의해 영화롭게 되었다 (καὶ ὁ θεὸς ἐδοξάσθη ἐν αὐτῷ.)
- (32절) [만약 하나님이 그에 의해 영화롭게 되었다면] ([εἰ ὁ θεὸς ἐδοξάσθη ἐν αὐτῷ,])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그 안에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καὶ ὁ θεὸς δοξάσει αὐτὸν ἐν αὐτῷ),
즉시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καὶ εὐθὺς δοξάσει αὐτόν.)
- (33절) 소자들아 (τεκνία,
아직 짧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ἔτι μικρὸν μεθ' ὑμῶν εἰμι.)
너희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ζητήσετε με.)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καὶ καθὼς εἶπον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나는 어디론가 가는데 너희들은 능히 오지 못할 것이다
(ὅτι ὅπου ἐγὼ ὑπάγω ὑμεῖς οὐ δύνασθε εἰλεῖν.)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καὶ ὑμῖν λέγω ἄρτι.)
- (34절) 내가 지금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Ἐντολὴν καινὴν δίδωμι ὑμῖν.)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ἵνα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καθὼς ἠγάπησα ὑμᾶς)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ἵνα καὶ ὑμεῖς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 (35절) 이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ἐν τούτῳ γίνονται πάντες)

- 너희가나의 제자라는 것을 (ὅτι ἐμοὶ μαθηταὶ ἐστέ.)
 만약너희 서로서로가 사랑을 지니고 있다면 (ἐάν ἀγάπην ἔχητε ἐν ἀλλήλοις.)
 (36절)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Σίμων Πέτρος·)
 주여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κύριε, ποῦ ὑπάγεις.)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ῷ] Ἰησοῦς·)
 내가가고자 하는 그곳을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 (ὅπου ὑπάγω οὐ δύνασάι μοι νῦν
 ἀκολουθῆσαι.)
 그러나나중에 따라올 것이다 (ἀκολουθήσεις δὲ ὕστερον.)
 (37절)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Πέτρος·)
 주여, 어찌하여 바로 지금은 내가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까?
 (κύριε, διὰ τί οὐ δύναμαί σοι ἀκολουθῆσαι ἄρτι·)
 내가당신을 대신하여 영혼을 내어 놓겠습니다 (τὴν ψυχὴν μου ὑπὲρ σοῦ θήσω.)
 (38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οκρίνεται Ἰησοῦς·)
 나를 대신하여 너의 영혼을 내어 놓겠다고? (τὴν ψυχὴν σου ὑπὲρ ἐμοῦ θήσεις·)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수탉이 울기 전까지 네가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οὐ μὴ ἄλέκτωρ φωνήσῃ ἕως οὗ ἁρνήσῃ με τρί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4 절을 읽으십시오. 34 절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내가 지금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Ἐντολὴν καινὴν δίδωμι ὑμῖν, 엔토렌 카이넨 디도미 후민)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ἵνα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히나 아가파테 알레로우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καθὼς ἠγάπησα ὑμᾶς, 카도스 에가페사 후마스)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ἵνα καὶ ὑμεῖς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히나 카이 후메이스 아가파테 알레로우스)

한글 성경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로 번역되어 있어서 ‘새 계명’=‘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이들은 동격이 아니라 결과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을 통해서만 비로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문법적으로 ‘히나(ἵνα)’가 이끄는 절은 목적 또는 결과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결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무언가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갖게 되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 구절을 목적으로 해석하면, 새 계명을 주는 목적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그 계명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갖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사랑은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의 결과이지 계명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가지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건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 계명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있어야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계명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계명이란 인간들이 행하여 완성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구약의 계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하셨습니다(마 22:35-40 참조).

“³⁵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³⁶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³⁷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³⁸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³⁹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⁴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5-40).

위 말씀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사랑’이라는 말로 재해석해 주신 것이지요. 문제는 그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고 가능해지느냐입니다. 인간들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지요. 그들이 율법이 무엇인지 몰라서 또는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세부 지침까지 만들어서 백성들 모두가 지키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은 율법의 최고의 가치인 사랑을 만들어 내지 못했고 결국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금의 우리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날 밤 십여 준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좀더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은 유독 요한의 서신서에서만 발견되는데 오늘 이 본문(요 13:34) 외에 15장 12절, 요한일서 3장 23절에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 15:9-12)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요일 3:23)

“서로 사랑하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과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과 동일한 문법 구조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말씀의 공통되는 부분만 추려서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Ἐντολὴν καινὴν δίδομι ὑμῖν,	ἵνα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καθὼς ἠγάπησα ὑμᾶς.... (요 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도록....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Αὕτη ἐστὶν ἡ ἐντολὴ ἡ ἐμὴ,	ἵνα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καθὼς ἠγάπησα ὑμᾶς (요 15:12)
(이 것이 나의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도록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αὕτη ἐστὶν ἡ ἐντολὴ αὐτοῦ,	ἵνα ... ἀγαπῶμεν ἀλλήλους,	καθὼς ἔδωκεν ἐντολὴν ἡμῖν. (요일 3:23)
(이것이 그의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도록....	그가 우리에게 계명을 준 것처럼)

여기서 히나(iva)와 함께 나오는 부분 즉, “서로 사랑하도록”이라는 부분을 그냥 계명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5 장 9 절~11 절, 요한일서 3 장 24 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 장 9 절~11 절과 요한일서 3 장 24 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요 15:9~11).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요일 3:24).

결국 이 말씀에 따르면 계명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고 그 덕분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우리들은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 비로소 상대방에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 의미를 안다면 당신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삶 속에서 체험한다면 비로소 당신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용서와 사랑은 참 제자의 증거 (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3:31~38)

31.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32.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3.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6.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 오리라
37.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답을 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원문해석하기

- (31절) 그런데 그가 나갔을 때 (Ὅτε οὖν ἐξῆλθεν,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Ἰησοῦς)
지금 인자가 영화롭게 되었다 (νῦν ἐδοξάσθη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의해 영화롭게 되었다 (καὶ ὁ θεὸς ἐδοξάσθη ἐν αὐτῷ.)
- (32절) [만약 하나님이 그에 의해 영화롭게 되었다면] ([εἰ ὁ θεὸς ἐδοξάσθη ἐν αὐτῷ,])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그 안에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καὶ ὁ θεὸς δοξάσει αὐτὸν ἐν αὐτῷ),
즉시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καὶ εὐθὺς δοξάσει αὐτόν.)
- (33절) 소자들아 (τεκνία,
아직 짧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ἔτι μικρὸν μεθ' ὑμῶν εἰμι.)
너희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ζητήσετε με.)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καὶ καθὼς εἶπον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나는 어디론가 가는데 너희들은 능히 오지 못할 것이다
(ὅτι ὅπου ἐγὼ ὑπάγω ὑμεῖς οὐ δύνασθε εἰλεῖν.)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καὶ ὑμῖν λέγω ἄρτι.)
- (34절) 내가 지금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Ἐντολὴν καινὴν δίδωμι ὑμῖν.)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ἵνα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καθὼς ἠγάπησα ὑμᾶς)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ἵνα καὶ ὑμεῖς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 (35절) 이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ἐν τούτῳ γινώσκονται πάντες)

- 너희가나의 제자라는 것을 (ὅτι ἐμοὶ μαθηταὶ ἐστέ.)
 만약너희 서로 서로가 사랑을 지니고 있다면 (ἐὰν ἀγάπην ἔχητε ἐν ἀλλήλοις.)
- (36절)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Σίμων Πέτρος·)
 주여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κύριε, ποῦ ὑπάγεις.)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ῷ] Ἰησοῦς·)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을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 (ὅπου ὑπάγω οὐ δύνασάι μοι νῦν
 ἀκολουθῆσαι.)
 그러나 나중에 따라올 것이다 (ἀκολουθήσεις δὲ ὕστερον.)
- (37절)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Πέτρος·)
 주여, 어찌하여 바로 지금은 내가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까?
 (κύριε, διὰ τί οὐ δύναμαί σοι ἀκολουθῆσαι ἄρτι·)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영혼을 내어 놓겠습니다 (τὴν ψυχὴν μου ὑπὲρ σοῦ θήσω.)
- (38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οκρίνεται Ἰησοῦς·)
 나를 대신하여 너의 영혼을 내어 놓겠다고? (τὴν ψυχὴν σου ὑπὲρ ἐμοῦ θήσεις·)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수탉이 울기 전까지 네가 나를 세 번부인하게 될 것이다
 (οὐ μὴ ἁλέκτωρ φωνήσῃ ἕως οὗ ἁρνήσῃ με τρί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5 절을 읽으십시오. “만약너희 서로가 사랑을 갖고 있다면 너희가나의 제자라는 것을 이에 의해 모든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거봐, 사랑해야 하잖아!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해야 되잖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여겨지는 사랑이지 기독교인 만의 독점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했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타종교인들이 나무신론자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사랑을 실천해서 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언뜻 들으면 옳은 말 같지만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목적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잘못된 인간들이 그 대가를 충분히 치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는 방식은 세상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죄인인 우리가 대가를 치르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대신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으며 그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 대가는 몇 대 맞거나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모든일을 듣

고 깨달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동안 죄의 무게를 덜기 위해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 하나님께 의롭고 거룩하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을 내려 놓고 눈물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붙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사랑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반드시 용서하는 측의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는 측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의 사랑은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우리 대신 갚으신 것입니다. 그냥 없던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그 빚을 갚으신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 무게가 엄청난 것이지요.

이런 엄청난 용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원리를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갖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지요. 기독교가 하나님이 죄인을 조건없이 용서하는 것에서 출발했다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죄에서 놓여 자유를 선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놓임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 번째, 자신을 향한 정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해도 자기가 스스로 죄의 사슬, 즉 죄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엄격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단순한 지식으로만 아는 자에 불과하지 진정으로 용서 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늘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우며, 부끄럽고 불편하다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선언적 의미의 구원은 알지만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구원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반쪽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각종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직도 선과 악을 스스로의 기준으로 분별하여 여전히 자기 힘으로 악을 물리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굴레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둘째로, 남을 향한 정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나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대가를 치르게 하거나 사과를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가득찬 사람은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모르는 자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도 역시 내 안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선악 판단의 틀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남들에게 율법의 칼날을 들이대면 용서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율법의 잣대를 버리고 그를 나의 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최고의 계명, 최고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

어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으시고 대신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누군가를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선물로 받은 자라면 우리 역시도 우리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여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유일하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진정으로 남들을 용서하고 당신 품 안으로 품어 주시나요? 아니면 지금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당신 앞에 굴복시키기려 애쓰고 계신가요?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3:31~38)

31.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32.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3.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6.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 오리라
37.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답을 하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원문해석하기

- (31절) 그런데 그가 나갔을 때 (Ὅτε οὖν ἐξῆλθεν,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Ἰησοῦς)
지금 인자가 영화롭게 되었다 (νῦν ἐδοξάσθη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의해 영화롭게 되었다 (καὶ ὁ θεὸς ἐδοξάσθη ἐν αὐτῷ.)
- (32절) [만약 하나님이 그에 의해 영화롭게 되었다면] ([εἰ ὁ θεὸς ἐδοξάσθη ἐν αὐτῷ,])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그 안에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καὶ ὁ θεὸς δοξάσει αὐτὸν ἐν αὐτῷ),
즉시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καὶ εὐθὺς δοξάσει αὐτόν.)
- (33절) 소자들아 (τεκνία,
아직 짧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ἔτι μικρὸν μεθ' ὑμῶν εἰμι.)
너희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ζητήσετε με.)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καὶ καθὼς εἶπον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나는 어디론가 가는데 너희들은 능히 오지 못할 것이다
(ὅτι ὅπου ἐγὼ ὑπάγω ὑμεῖς οὐ δύνασθε εἰσεῖν.)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καὶ ὑμῖν λέγω ἄρτι.)
- (34절) 내가 지금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Ἐντολὴν καινὴν δίδωμι ὑμῖν.)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ἵνα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καθὼς ἠγάπησα ὑμᾶς)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ἵνα καὶ ὑμεῖς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 (35절) 이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ἐν τούτῳ γινώσκονται πάντες)

- 너희가나의 제자라는 것을 (ὅτι ἐμοὶ μαθηταὶ ἐστέ.)
 만약너희 서로 서로가 사랑을 지니고 있다면 (ἐὰν ἀγάπην ἔχητε ἐν ἀλλήλοις.)
- (36절)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Σίμων Πέτρος·)
 주여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κύριε, ποῦ ὑπάγεις.)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ῷ] Ἰησοῦς·)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을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 (ὅπου ὑπάγω οὐ δύνασαι μοι νῦν
 ἀκολουθῆσαι.)
 그러나 나중에 따라올 것이다 (ἀκολουθήσεις δὲ ὕστερον.)
- (37절)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Πέτρος·)
 주여, 어찌하여 바로 지금은 내가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까?
 (κύριε, διὰ τί οὐ δύναμαί σοι ἀκολουθῆσαι ἄρτι.)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영혼을 내어 놓겠습니다 (τὴν ψυχὴν μου ὑπὲρ σοῦ θήσω.)
- (38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οκρίνεται Ἰησοῦς·)
 나를 대신하여 너의 영혼을 내어 놓겠다고? (τὴν ψυχὴν σου ὑπὲρ ἐμοῦ θήσεις.)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수탉이 울기 전까지 네가 나를 세 번부인하게 될 것이다
 (οὐ μὴ ἄλεκτωρ φωνήσῃ ἕως οὗ ἁρνήσῃ με τρί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6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끼어들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이 질문은 예수님이 새 계명에 대해 말씀하기 직전에 “나는 어디론가 가는데 너희들은 능히 오지 못할 것이다”(33 절)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새 계명보다는 예수님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비단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복음, 그것을 통해 계시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 자신이 처한 문제에만 몰입되어 말씀을 자기 상황에 억지로 끼워맞추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재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두 경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읽으면서 항상 모든 결론을 물질적인 축복으로 귀결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나 심각한 병을 지닌 가족을 둔 분들은 성경의 말씀이 모두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을 고치신 것들이 마치 자신에게 일어날 기적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태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누구든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땐 그렇게라도 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은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집착이요 맹신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은 예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 백성을 구원하였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것이지요. 성경은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비결이 적힌 책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지침서도 아닙니다. 딱딱한 세상살이에 지치고 실패하여 어려움에 처해서 숨쉬는 것조차 버거운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고된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그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하나 찾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 장에는 바디메오라는 장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막 10:46~52). 예수님 일행이 예리고에 이르렀을 때 거지이자 장남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시키려 했으나 그는 더더욱 소리높여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그 눈을 고쳐주게 되고 빛을 찾은 그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영똥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가복음 10 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뒤를 따르게 되었는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답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가 장남이었고 거지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그곳에 모인 군중들처럼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가 그토록 애타게 예수님을 부를 필요가 있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결국 그의 경제적인 궁핍, 육체적인 결함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행한 것입니다. 참고로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시 ‘존귀한 자’는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원래 존귀한 자의 아들이지만 자기 신분도 모른 채 이 땅에서는 거지요 장남으로 힘겹게 살아가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 원래 자신의 신분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공동체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예수님께 일어날 일에 온통 신경을 쓰다가 정작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 자신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힘든 고난의 길을 가야한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요? 그는 제자들이 진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도 놓친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전처럼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다가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 새벽녘에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들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거꾸로 시간을 돌려서 3년 전 어느 새벽,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지친 모습으로 빈 그물을 찢던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그 광경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지쳐있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의 아픈 곳을 건드리고자 한 질문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도 제대로 모른 채 이 세상에서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 열성적으로 자기를 따랐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새 계명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계명을 완성하셨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받을 차례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수난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그사랑의 의미를 더디어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 드릴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그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베드로, 예수님을 면전에서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이내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의미를 깨닫고는 그 자신도 십자가를 향해 주저없이 걸어갔습니다.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있었고, 그 계명은 다름아닌 예수님이셨기에 그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을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 13:31~38)

31. 저가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32.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3.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6.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 오리라
37.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답을 하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원문해석하기

- (31절) 그런데 그가 나갔을 때 (Ὅτε οὖν ἐξῆλθεν,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Ἰησοῦς)
지금 인자가 영화롭게 되었다 (νῦν ἐδοξάσθη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의해 영화롭게 되었다 (καὶ ὁ θεὸς ἐδοξάσθη ἐν αὐτῷ.)
- (32절) [만약 하나님이 그에 의해 영화롭게 되었다면] ([εἰ ὁ θεὸς ἐδοξάσθη ἐν αὐτῷ,])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그 안에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καὶ ὁ θεὸς δοξάσει αὐτὸν ἐν αὐτῷ,)
즉시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καὶ εὐθὺς δοξάσει αὐτόν.)
- (33절) 소자들아 (τεκνία,
아직 짧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ἔτι μικρὸν μεθ' ὑμῶν εἰμι.)
너희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ζητήσετε με.)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καὶ καθὼς εἶπον 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나는 어디론가 가는데 너희들은 능히 오지 못할 것이다
(ὅτι ὅπου ἐγὼ ὑπάγω ὑμεῖς οὐ δύνασθε εἰλεῖν.)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καὶ ὑμῖν λέγω ἄρτι.)
- (34절) 내가 지금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Ἐντολὴν καινὴν δίδωμι ὑμῖν.)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ἵνα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καθὼς ἠγάπησα ὑμᾶς)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ἵνα καὶ ὑμεῖς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 (35절) 이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ἐν τούτῳ γίνονται πάντες)

- 너희가나의 제자라는 것을 (ὅτι ἐμοὶ μαθηταὶ ἐστέ.)
 만약너희 서로 서로가 사랑을 지니고 있다면 (ἐὰν ἀγάπην ἔχητε ἐν ἀλλήλοις)
 (36절)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Σίμων Πέτρος·)
 주여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κύριε, ποῦ ὑπάγεις·)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ῷ] Ἰησοῦς·)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을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 (ὅπου ὑπάγω οὐ δύνασάι μοι νῦν
 ἀκολουθῆσαι.)
 그러나 나중에 따라올 것이다 (ἀκολουθήσεις δὲ ὕστερον.)
 (37절)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Πέτρος·)
 주여, 어찌하여 바로 지금은 내가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까?
 (κύριε, διὰ τί οὐ δύναμαί σοι ἀκολουθῆσαι ἄρτι·)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영혼을 내어 놓겠습니다 (τὴν ψυχὴν μου ὑπὲρ σοῦ θήσω.)
 (38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οκρίνεται Ἰησοῦς·)
 나를 대신하여 너의 영혼을 내어 놓겠다고? (τὴν ψυχὴν σου ὑπὲρ ἐμοῦ θήσεις·)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수탉이 울기 전까지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οὐ μὴ ἄλεκτωρ φωνήσῃ ἕως οὗ ἁρνήσῃ με τρί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6~38 절을 읽으십시오. 베드로가 “주여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가는 곳을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지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자신의 영혼까지 내 놓겠다고 큰소리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영혼을 내주는 커녕 오히려 닭이 울기 전에 자기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시며, 왜 베드로는 당장 그길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이어지는 14 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3 장의 전체 내용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은 단순히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그날 밤 자신에게 임할 그 엄청난 수난과 그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결국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며, 예수님 홀로 그 길을 걷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나중에 성령님이 임한 후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홀로 외로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서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는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질문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합니

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베드로는 올바르게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그 예언 말미에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삼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이 “비로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비난을 해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종용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한 고백이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성취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점점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상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베드로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²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²⁵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²⁶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4-26).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길을 가시는데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고 호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이 세상에서 점점 더 낮은 곳으로 가셔서 끝내는 홀로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에게 지금은 그 길을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혹독한 환란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요즈음도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박해받고 있습니다. 목이 잘려 죽는 사람도 있고, 불에 태워지는 어린 아이도 있으며,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던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옳기 때문에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것을 지켜내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¹¹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¹²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¹³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1-13).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풍부에만 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배부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도 견딜 수 있는 것이지요. 행복할 때 뿐 아니라 환란 가운데서도 기뻐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이이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무언가를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지요? 내가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다는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예수님이 아닌 인간에 기초한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호기 있게 큰소리를 치는 베드로에게 오히려 수탉이 울기 전에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공동체의 중심 인물로 받아 주십니다. 그것이 용서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너희 마음이 근심되지 않게 하라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 14:1~11)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5.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도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원문해석하기

- (1절) 너희 마음이 근심되지 않게 하라 (Μὴ ταρασσέσθω ὑμῶν ἡ καρδία·)
아버지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πιστεύετε εἰς τὸν θεὸν καὶ εἰς ἐμὲ πιστεύετε.)
- (2절)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ἐν τῇ οἰκίᾳ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μοναὶ πολλάι εἰσίν·)
만약 그렇지 않다면 (εἰ δὲ μή·)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무엇이든 미리 말했겠지? (εἶπον ἂν ὑμῖν ὅτι πορεύομαι ἐτοιμάσαι τόπον ὑμῖν·)
- (3절) 그리고 만약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장소를 예비한다면 (καὶ ἐὰν πορευθῶ καὶ ἐτοιμάσω τόπον ὑμῖν·)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받아들일 것이다 (πάλιν ἔρχομαι καὶ παραλήμνομαι ὑμᾶς πρὸς ἐμαυτόν·)
그 결과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들도 있게 될 것이다 (ἵνα ὅπου εἰμι ἐγὼ καὶ ὑμεῖς ἦτε.)
- (4절) 그리고 내가 [지금] 떠나고 있고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다 (καὶ ὅπου [ἐγὼ] ὑπάγω οἴδατε τὴν ὁδόν·)
- (5절) 도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Θωμᾶς·)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고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κύριε, οὐκ οἶδαμεν ποῦ ὑπάγεις·)
어떻게 우리가 능히 그 길을 알겠습니까? (πῶς δυνάμεθα τὴν ὁδὸν εἰδέναι·)
- (6절)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ἐγὼ εἰμι ἡ ὁδὸς καὶ ἡ ἀλήθεια καὶ ἡ ζωή·)

- 만약 나를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다
(οὐδείς ἔρχεται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εἰ μὴ δι' ἐμοῦ.)
- (7절) 만약 너희들이 나를 알아 왔다면 (εἰ ἐγνώκατέ με,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κα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γνώσεσθε.)
그리고 지금부터 그를 알게 될 것이다 (καὶ ἄρτι γινώσκετε αὐτόν)
그리고 그를 보았을 것이다 (καὶ ἑωράκατε αὐτόν.)
- (8절) 빌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Λέγει αὐτῷ Φίλιππος·)
주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κύριε, δεῖξον ἡμῖν τὸν πατέρα·)
그리고 것이 나에게 충분합니다 (καὶ ἄρκεῖ ἡμῖν·)
- (9절)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내가 수많은 시간을 너희와 함께 했다 (τοσούτω χρόνῳ μεθ' ὑμῶν εἰμι)
그리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빌립아? (καὶ οὐκ ἐγνώκας με, Φίλιππε·)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ὁ ἑωρακὼς ἐμὲ ἑώρακεν τὸν πατέρα·)
어떻게 네가 말하기를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하느냐? (πῶς σὺ λέγεις· δεῖξον ἡμῖν τὸν πατέρα·)
-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안에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οὐ πιστεύεις ὅτι ἐγὼ ἐν τῷ πατρὶ καὶ ὁ πατήρ ἐν ἐμοὶ ἔστιν·)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τὰ ῥήματα ἃ ἐγὼ λέγω ὑμῖν ἄπ' ἐμαυτοῦ οὐ λαλῶ·)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ὁ δὲ πατήρ ἐν ἐμοὶ μένων ποιεῖ τὰ ἔργα αὐτοῦ.)
-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안에 있음을 믿으라
(πιστεύετε μοι ὅτι ἐγὼ ἐν τῷ πατρὶ καὶ ὁ πατήρ ἐν ἐμοί·)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 일 때문에 믿으라 (εἰ δὲ μή, διὰ τὰ ἔργα αὐτὰ πιστεύετ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이 근심되지 않게 하라시며 아버지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채 한 시간도 안 되는 동안 눈 앞에서 일어난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찬도 중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그렇고, 제자 중 한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도 그렇고, 자신이 이제 제자들이 당장 오지 못할 곳으로 가신다는 말씀도 그러하며, 제자들의 리더격인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라는 말씀도 그러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근심으로 가득했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심 가득한 마음으로 불안해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 마음이 근심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을 주어로 하여 수동태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여 너희를 주어로 한 능동태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근심하다, 소동하다, 떨다, 두려워하다 등의 의미로 쓰인 헬라어 동사 ‘타라쏘’(ταράσσω)의 특징 때문입니다. 이 단어

는 항상 수동태로만 쓰입니다. 이 단어가 늘 수동태로 쓰이는 이유는 두려움이나 근심 등의 감정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근심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근심이란 주로 불확실한 미래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평소 답지 않게 행동하고 또 이상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제자들의 마음에 드리워진 근심은 앞으로 닥쳐올 불확실한 예수 공동체의 운명을 예감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근심되지 않게 하라고 하셨고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근심이 될만한 것들을 확실하게 해소시켜 주셔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자신이 없애주리라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 근심, 염려는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답을 ‘믿음’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구하라고 명하십니다. 1절을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은 계속됩니다. “아버지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결국 믿음만이 답입니다. 문제는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으면 다 됩니다”라는 말은 희망적인 고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란 그렇게 쉽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모두가 마음이 편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나 근심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환자가 있습니다. 속이 불편해서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무언가 이상한 조직이 발견되었고 조직 검사를 위해 약간의 조직을 떼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사로부터 검사 결과는 약 1주일 뒤에나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암이면 어찌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엎드려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외쳐도 보지만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습니다. 잠도 안 오고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쿨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에 떨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괜찮을 거라고 위로하는 말이 사실은 그닥 위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손에 쥐 때까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착각합니다. 믿음은 허상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이 근심되게 하지 말고 아버지를 믿고 자신을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 근심을 없애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예수님이 확실한 어떤 결과를 제자들에게 주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개인의 신념이나 의지적 각오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믿습니다!”라고 외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엡 2:8 참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히 11:1).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실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했고 우리를 두렵게 했던 것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생겨난 그 근심은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영을 제자들에게 보내 주심으로 온전하게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당장 그런 믿음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웠고 그들의 마음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온전히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이 우리로 안심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아직도 마음에 불안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저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나의 의로움에 기반을 둔 잘못된 신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들도 있게 될 것이다(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 14:1~11)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5.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원문해석하기

- (1절) 너희 마음이 근심되지 않게 하라 (Μὴ ταρασσέσθω ὑμῶν ἡ καρδία·)
아버지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πιστεύετε εἰς τὸν θεὸν καὶ εἰς ἐμὲ πιστεύετε.)
- (2절)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ἐν τῇ οἰκίᾳ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μοναὶ πολλαὶ εἰσὶν·)
만약 그렇지 않다면 (εἰ δὲ μή·)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무엇이든 미리 말했겠지?
(εἶπον ἂν ὑμῖν ὅτι πορεύομαι ἐτοιμάσαι τόπον ὑμῖν·)
- (3절) 그리고 만약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장소를 예비한다면 (καὶ ἐὰν πορευθῶ καὶ ἐτοιμάσω τόπον ὑμῖν·)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 들일 것이다 (πάλιν ἔρχομαι καὶ παραλήμψομαι ὑμᾶς πρὸς ἐμαυτόν·)
그 결과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들도 있게 될 것이다 (ἵνα ὅπου εἰμι ἐγὼ καὶ ὑμεῖς ᾔτε·)
- (4절) 그리고 내가 [지금] 떠나고 있고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다 (καὶ ὅπου [ἐγὼ] ὑπάγω οἴδατε τὴν ὁδόν·)
- (5절) 도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Θωμᾶς·)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고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κύριε, οὐκ οἴδαμεν ποῦ ὑπάγεις·)
어떻게 우리가 능히 그 길을 알겠습니까? (πῶς δυνάμεθα τὴν ὁδὸν εἰδέναι·)
- (6절)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ἐγὼ εἰμι ἡ ὁδὸς καὶ ἡ ἀλήθεια καὶ ἡ ζωή·)

- 만약 나를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다
(οὐδείς ἔρχεται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εἰ μὴ δι' ἐμοῦ.)
- (7절) 만약 너희들이 나를 알아 왔다면 (εἰ ἐγνώκατέ με,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κα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γνώσεσθε.)
그리고 지금부터 그를 알게 될 것이다 (καὶ ἄρ' ἄρτι γινώσκετε αὐτόν)
그리고 그를 보았을 것이다 (καὶ ἑωρόκατε αὐτόν.)
- (8절) 빌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Λέγει αὐτῷ Φίλιππος·)
주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κύριε, δεῖξον ἡμῖν τὸν πατέρα·)
그리고 것이 나에게 충분합니다 (καὶ ἄρκεῖ ἡμῖν·)
- (9절)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내가 수많은 시간을 너희와 함께 했다 (τοσούτω χρόνῳ μεθ' ὑμῶν εἰμι)
그리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빌립아? (καὶ οὐκ ἐγνώκας με, Φίλιππε·)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ὁ ἑωρακὼς ἐμὲ ἑώρακεν τὸν πατέρα·)
어떻게 네가 말하기를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하느냐? (πῶς σὺ λέγεις· δεῖξον ἡμῖν τὸν πατέρα·)
-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οὐ πιστεύεις ὅτι ἐγὼ ἐν τῷ πατρὶ καὶ ὁ πατὴρ ἐν ἐμοὶ ἔστιν·)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τὰ ῥήματα ἃ ἐγὼ λέγω ὑμῖν ἄρ' ἐμαυτοῦ οὐ λαλῶ·)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ὁ δὲ πατὴρ ἐν ἐμοὶ μένων ποιεῖ τὰ ἔργα αὐτοῦ.)
-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
(πιστεύετε μοι ὅτι ἐγὼ ἐν τῷ πατρὶ καὶ ὁ πατὴρ ἐν ἐμοί·)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 일 때문에 믿으라 (εἰ δὲ μή, διὰ τὰ ἔργα αὐτὰ πιστεύετ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4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고별사라고 배운 바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라가지 못할 곳으로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씀과 갑작스럽게 벌어질 일들로 인해 불안해 하고 있었지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말씀을 꺼냅니다. 앞뒤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뒤에 도마나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으로 판단하건데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미리 이런 말을 했을 것이 아니겠느냐?라며 반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거할 장소를 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어떤 장소로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장소를 ‘예비하신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거할 곳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예수님이 장소를 예비하셔야 할까요? 그냥 아무나 천국에 오는 순서대로 사람들에게 살 곳을 나누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천국이 현재 공사중이어서 그런 걸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믿는 사람들(여기서는 제자들)을 위해 거할 곳을 예비하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이 단순히 제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주거지를 분양해주시기 위해 미리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호 코스모스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가 언젠가 한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대는 재판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정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대한 판결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결과는 사형입니다(롬 1:32절).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에 대한 결과가 실제로 나에게 미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형선고를 하나님이 집행하셨고 놀랍게도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사형대에 서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별거벗은 채로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13절을 읽으십시오.

“¹²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¹³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어로 하나님의 로고스(ὁ λόγος τοῦ θεοῦ, 호 로고스 투우 데오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대신하여 죽은 사람들을 판단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앞에 벌거벗은 자로, 다시 말해 모든 죄가 노출된 채로 서야 합니다. 누가 흠없는 당당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어지는 히브리서 말씀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16절을 읽으십시오.

“¹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찌어다 ¹⁵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¹⁶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이자 구원자입니다.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 섰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뿐’입니다. 은혜란 나의 온갖 잘못이나 허물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수많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서 장소를 예비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셔서 자격없는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백성의 자격을 부여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22절을 읽겠습니다.

“¹⁹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²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²¹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²²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라는 것은 그가 희생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그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라는 것이지요. 그분이 하신 일은 자신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갈 길을 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이나 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은 채로 예수님 앞에 서더라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거할 곳을 예비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린 아이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벌거벗겨져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히셔서 죽으시며, 하나님에게 조차 외면 당해야 하는 절망 가운데 처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처소는 그저 넓디넓은 천국을 공짜로 조금씩 떼어서 분양해 주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소는 예수님이 피 흘리고 육체를 쪼개어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모를 겪으신 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도저히 그 가치를 따질 수도 없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공짜라고 마냥 좋아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대가없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나 대신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른 것이지요. 하나님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 값을 치른 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어린 아이처럼 마냥 기뻐하며 나갈 수 있나요? 정말 그럴 수 있으신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 14:1~11)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5.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도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원문해석하기

- (1절) 너희 마음이 근심되지 않게 하라 (Μὴ ταρασσέσθω ὑμῶν ἡ καρδία·)
아버지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πιστεύετε εἰς τὸν θεὸν καὶ εἰς ἐμὲ πιστεύετε.)
- (2절)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ἐν τῇ οἰκίᾳ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μοναὶ πολλάι εἰσίν·)
만약 그렇지 않다면 (εἰ δὲ μή·)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무엇이든 미리 말했겠지?
(εἶπον ἂν ὑμῖν ὅτι πορεύομαι ἐτοιμάσαι τόπον ὑμῖν·)
- (3절) 그리고 만약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장소를 예비한다면 (καὶ ἐὰν πορευθῶ καὶ ἐτοιμάσω τόπον ὑμῖν·)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 들일 것이다 (πάλιν ἔρχομαι καὶ παραλήμψομαι ὑμᾶς πρὸς ἐμαυτόν·)
그 결과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들도 있게 될 것이다 (ἵνα ὅπου εἰμι ἐγὼ καὶ ὑμεῖς ᾔτε.)
- (4절) 그리고 내가 [지금] 떠나고 있고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다 (καὶ ὅπου [ἐγὼ] ὑπάγω οἴδατε τὴν ὁδόν·)
- (5절) 도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Θωμᾶς·)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고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κύριε, οὐκ οἴδαμεν ποῦ ὑπάγεις·)
어떻게 우리가 능히 그 길을 알겠습니까? (πῶς δυνάμεθα τὴν ὁδὸν εἰδέναι·)
- (6절)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ἐγὼ εἰμι ἡ ὁδὸς καὶ ἡ ἀλήθεια καὶ ἡ ζωή·)

- 만약 나를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다
(οὐδείς ἔρχεται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εἰ μὴ δι' ἐμοῦ.)
- (7절) 만약 너희들이 나를 알아 왔다면 (εἰ ἐγνώκατέ με,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κα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γνώσεσθε.)
그리고 지금부터 그를 알게 될 것이다 (καὶ ἄρ' ἄρτι γινώσκετε αὐτόν)
그리고 그를 보았을 것이다 (καὶ ἐωράκατε αὐτόν.)
- (8절) 빌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Λέγει αὐτῷ Φίλιππος·)
주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κύριε, δεῖξον ἡμῖν τὸν πατέρα·)
그리고 것이 나에게 충분합니다 (καὶ ἀρκεῖ ἡμῖν·)
- (9절)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내가 수많은 시간을 너희와 함께 했다 (τοσούτῳ χρόνῳ μεθ' ὑμῶν εἰμι·)
그리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빌립아? (καὶ οὐκ ἐγνώκας με, Φίλιππε·)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ὁ ἑώρακώς ἐμὲ ἑώρακεν τὸν πατέρα·)
어떻게 네가 말하기를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하느냐? (πῶς σὺ λέγεις· δεῖξον ἡμῖν τὸν πατέρα·)
-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οὐ πιστεύεις ὅτι ἐγὼ ἐν τῷ πατρὶ καὶ ὁ πατὴρ ἐν ἐμοὶ ἔστιν·)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τὰ ῥήματα ἃ ἐγὼ λέγω ὑμῖν ἄρ' ἐμαυτοῦ οὐ λαλῶ·)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ὁ δὲ πατὴρ ἐν ἐμοὶ μένων ποιεῖ τὰ ἔργα αὐτοῦ.)
-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
(πιστεύετε μοι ὅτι ἐγὼ ἐν τῷ πατρὶ καὶ ὁ πατὴρ ἐν ἐμοί·)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 일 때문에 믿으라 (εἰ δὲ μή, διὰ τὰ ἔργα αὐτὰ πιστεύετ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5-6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이 거할 장소를 예비하기 위해 가신다고 말씀하시자 도마가 중간에 끼어들어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고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능히 그 길을 알겠습니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만약 나를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느니라”라고 대답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도 ‘도마’라고 하면 무작정 ‘의심 많은 자’라는 생각부터 떠올립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 제자들을 찾아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요20:25)라고 말한 데에서 기인합니다. 사실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 외에는 그가 믿을만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누구든 그런 상황에서서는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로부터 8일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자기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20:28)라고 고백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매우 현실적이며 실증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속으로는 확신이 들지 않아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남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 걸으려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지요. 믿음은 이런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견고해집니다. 성경 말씀과 나의 현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맹목적 믿음은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마와 같은 합리적 의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심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5절의 도마의 질문은 이러한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침묵한 것은 그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도마의 이 질문은 모든 제자들을 대신한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떠나고 있고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나 사람이 걸어 가는 길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이 실제로 땅위에 난 길이 아니라 하나님 께로 가기 위한 통로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6절을 다시한 번 읽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길,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굳이 정관사를 붙여 번역을 하면 “내가 바로 그 길이요 내가 바로 그 진리이며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찾는 그 길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작정 예수님을 믿는다고 외치며,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아웃리치를 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도 어기지 않는다고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지요. 예수님을 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어찌면 나의 의를 쌓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조차 내려 놓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라는 그 길이 우리 앞에 보이게 됩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바로 그 길이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고 그 길로 걷고 있나요?

예수님은 “만약 나를 통하지 않는다면”(εἰ μὴ δι' ἐμοῦ, 에이 메 디' 에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마음 속으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구세주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그 복음을 아는 것 이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야 하며 또 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말이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4-26).

우리는 흔히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속 썩이는 사람이 있으면 ‘내 십자가지 뭐!’라는 자조섞인 말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내가 쌓아 놓은 모든 의를 버려야 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다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이 세상 가치를 따라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과 벗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공유하며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게 되면 세상은 결코 칭찬하고 박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고 따돌림 당하지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나의 의를 벗고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의로 갈아입는 과정이 바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정말로 진리의 길로 걷고 계신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